

Original Article

한외과대학 학생의 의료봉사활동이 역량 증대에 미치는 영향과 의료봉사활동 지침 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이지현^{1§}, 이륜경^{1§}, 김범수¹, 김민정^{1,2*}

¹상지대학교 한외과대학, ²상지대학교 한방병원 침구의학과

A Survey Study on the Effect of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on Competency Enhancement and the Development of Medical Volunteer Guidelines for Korean Medicine Students

Jihyun-Lee¹, Ryunkyeong-Lee¹, Beomsoo-Kim¹, Minjeong-Kim^{1,2*}

¹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²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of Korean Medicine, Korean Medicine Hospital of Sangji University

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dentify the effects in competency enhancement of students participating in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and to investigate the current conditions and needs for developing guidelines.

Methods: A self-reporting online survey was conducted with Korean medicine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The first survey, sent to 147 participants on July 6, 2024, consisted of questions on clinical guidelines for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and professional competency evaluation before the volunteer activities. The second survey, sent to 53 participants on July 12, 2024, used the same competency evaluation items to assess changes after the volunteer activities.

Results: Due to the lack of current clinical guidelines, most students are experiencing difficulties. There is a demand for comprehensive guidelines and specific items for immediate application in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have enhanced the professional competencies of Korean medicine students in all aspects.

Conclusions: Through these results, Research on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and the development of guidelines is essential for its advancement.

Key Words : *medical volunteer activities, Korean medicine student, competency, guideline*

서론

의료봉사활동은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농어촌, 외국인 근로자, 노숙인, 새터민 등 사회적 약자의

건강권과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료진, 한외과대학 학생, 자원봉사자의 참여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다. 특히 한의 진료의 특성상, 특수한 의료장비의 필요도가 적고, 침구 치료 등 비교적 간편한 기술을 통

• Received : 25 July 2024

• Revised : 12 August 2024

• Accepted : 19 August 2024

• Correspondence to : Minjeong Kim

Department of Acupuncture & Moxibustion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angji University, 83 Sangjidae-ro, Wonju, Gangwon-do, 26338, Republic of Korea

Tel : +82-33-741-9289, Fax : +82-33-741-9141, E-mail : goodykmj@hanmail.net

§ These authors contributed equally to this work.

하여 우수한 치료 효과를 발휘하는 장점이 있어, 한의 의료봉사에 대해 환자 및 치료자의 만족도가 높다¹⁾. 그 뿐만 아니라, 의료봉사활동은 학생들에게 동기를 부여하여 봉사정신과 전공에 대한 흥미를 향상시키고²⁾, 환자에 대한 책임감을 부여하고, 앞으로 한의사가 될 자신에게 필요한 역량이 무엇인지 탐색하고 성장하는 시간을 갖게 된다³⁾.

각 한의과대학에서는 해당 대학의 교육 실정에 맞는 교육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각 한의과대학에서 명칭의 차이는 있으나 교육, 연구, 사회기여, 지식, 윤리, 봉사 등을 중심으로 핵심역량을 설정하였다. 본 연구를 진행한 OO한의과대학에서는 졸업성과(KMCP)를 제시하였다. KMCP에서 K는 Knowledge를, M은 Korean Medical Competency를, C는 Communication을, P는 Professionalism을 의미한다. OO한의과대학에서는 이에 해당하는 핵심역량을 개발하여 교육과정 로드맵을 구성하였다.

다양한 핵심역량을 함양하는 것에 있어서 의료봉사활동이 중요한 역할을 지닌다⁴⁾. 의료 봉사활동은 봉사자에게 정서적 만족과 행복감을 주며, 자원봉사 대상자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사회적 소통 능력 배양에 도움을 주며, 전공에 대한 관심과 지식을 쌓아 학습에도 영향을 준다¹⁾. 이는 각 한의과대학에서 제시하는 사회기여, 윤리, 의사소통, 교육, 지식 등에 관한 핵심역량에 해당한다.

현재 의료봉사를 주제로 한 연구 및 가이드라인은 부족한 실정이다. 의료봉사활동을 포함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연구로는 의과대학 2건^{2,4)}, 치과대학 1건⁵⁾, 한의과대학 3건^{1,6,7)}, 보건계열 7건^{8,9,10,11,12,13,14)}으로 총 13건 정도에 불과하다. 그 중에서도 만족도 조사에 관한 논문이 총 8건^{1,6,10,11,12,13,14)}이고, 인식 및 실태 조사에 관한 논문이 총 2건^{4,5)}이다. 대부분의 논문이 만족도 조사에 해당하였다.

한의과대학에서 추구하는 역량을 기준으로 의료봉사활동 전과 후를 평가한 연구는 없었다. 또한 기존 연구¹⁾에서는 만족도 점수를 근거로 하여 사전모의 진료교육에 대한 필요성과 의료사고 예방 및 대처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였으나 이와 관련된 안전 기술 의료봉사 활동을 위한 자료는 찾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O 대학교 한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하여, 한의과대학 졸업성과와 핵심역량을 지표로 삼아 의료봉사 후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파악해보고자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의료봉사 활동 매뉴얼 개발을 위한 현황 및 수요 조사를 시행하여, 안전 기술 의료봉사활동 진료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방법

2024년 7월 8일부터 7월 12일까지 진행된 OO 대학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에 참여한 OO 대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조사는 2차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URL(<https://forms.gle/bqC9DcZS1tRa68Dk7>, <https://forms.gle/SbpPRayEb7aFcfjQ7>)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1차와 2차 설문조사는 각각 2024년 7월 6일과 7월 12일에 각각 147명과 53명에게 발송되었다.

2. 설문 내용 및 문항 구성

1차 설문조사의 내용은 크게 한의 의료봉사 진료 지침에 관한 것과 전공능력평가로 구성되었다.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관한 설문지는 침구의학과 교수 1명과 한의학과 학생 연구원 3명의 논의와 합의 과정을 통해 개발하였다.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관해서는 진료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항목, 각 항목에서 포함되어야 하는 세

부 내용에 관해 객관식 문항으로 제시되었다. 전공능력평가 항목은 OO 한의과대학의 졸업성과(KMCP)와 핵심역량(CO16)을 참고하였다(Table 1).

2차 설문조사는 의료봉사가 전공능력 향상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1차 설문조사의 전공능력평가 항목과 동일하게 진행되었다.

3. 통계적 분석 방법

IBM SPSS statistics 29를 이용하여 설문조사의 각 문항에 대한 빈도분석을 시행하였다. 의료봉사활동 전과 후의 역량 지표 변화에 대해서는 paired-t test 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1. 응답률

1차 설문조사는 2024년 7월 6일 147명에게 발송되었으며, 그 중 53명이 설문에 응답하여 36.05%의 응답률을 보였다. 2차 설문조사는 2024년 7월 12일 1차 설문조사에 응답한 53명에게 발송되었으며, 그 중 53명이 응답하여 100%의 응답률을 보였다.

2.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1) 성별

설문조사 응답자 53명 중 남성은 35명(66.03%), 여성은 18명(33.96%)이었다(Fig. 1).

Table 1. Curriculum Roadmap of Department of Korean Medicine

Graduation Achievements (KMCP)	Competency Outcomes (CO16)	
Knowledge	K1	Understanding scientific principles and explaining the principles of a healthy body and diseases at the level of body structure, organs, tissues, cells, and molecules.
	K2	Understanding the theorie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explaining the physiology and pathology of health issues.
	K3	Searching, selecting, and integrating medical information. (Medical Informatics)
Korean Medical Competency	M1	Diagnosing using physical examination and medical devices. (Patient Investigation)
	M2	Formulating treatment plans through clinical reasoning. (Clinical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
	M3	Proficiently performing clinical procedures required for primary care. (Clinical Skills)
	M4	Managing patients according to treatment plans. (Patient Management)
	M5	Providing guidance on disease prevention and health promotion to patients. (Prevention)
	M6	Making judgments and taking actions in emergency situations.
Communication	C1	Communicating effectively with patients and caregivers with empathy.
	C2	Communicating appropriately with practitioners of traditional Korean medicine and other types of medicine.
Professionalism	P1	Understanding and maintaining the professionalism and values of being a traditional Korean medicine practitioner.
	P2	Engaging in self-directed learning and personal development. (Personal Development)
	P3	Understanding relevant laws and systems, and managing medical records and hospital administration. (Legal Responsibility, Informatics)
	P4	Respecting human dignity and establishing ethical values in diagnosis and treatment. (Ethical)
	P5	Possessing the knowledge and skills to actively participate in activities required for public health, community health, and international health. (Social Responsibility)

2) 학년

설문조사 응답자 53명 중 예과 1학년은 6명(11.32%), 예과 2학년은 10명(18.86%), 본과 1학년은 9명(16.98%), 본과 2학년은 7명(13.20%), 본과 3학년은 12명(22.64%), 본과 4학년은 9명(16.98%)이었다(Fig. 1).

3) 의료봉사 참여횟수

의료봉사 참여횟수는 1차 설문조사에서만 설문하였으며 응답자 53명 중 ‘참가한 적이 없다’는 16명(30.18%), ‘1회’는 15명(28.30%), ‘2회’는 12명(22.64%), ‘3회’는 4명(7.54%), ‘4회’는 5명(9.43%), ‘5회’는 0명(0.00%), ‘6회 이상’ 1명(1.88%)이었다(Fig. 1).

3.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대한 조사

1)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필요성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답한 53명의 응답자 중 ‘전혀 그렇지 않다’가 8명(15.1%), ‘그렇지 않다’가 8명(15.1%), ‘보통이다’가 16명(30.2%), ‘그렇다’가 16명(30.2%), ‘매우 그렇다’가 5명(9.4%)이었다(Fig. 2).

2)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항목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에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은 최대 3개로 중복 답변이 가능하게 하였다. 총 53명이 응답하였으며 진료시스템(안내, 예진, 본진, 치료, 투약, 설명)이 40명(75.5%), 침구치료가 24명(45.3%), 환자관리(주의사항)가 23명(43.4%), 진료환경이 20명(37.7%), 감염관리가 18명(34%), 검사가 8명(15.1%), 약물치료가 6명(11.3%), 환자 및 질병 특성(농촌/의료취약지역/산업단지(외국인노동자))이 5명(9.4%), 의사소통(방언, 난청, 외국인)이 3명(5.7%) 순으로 나타났다(Fig.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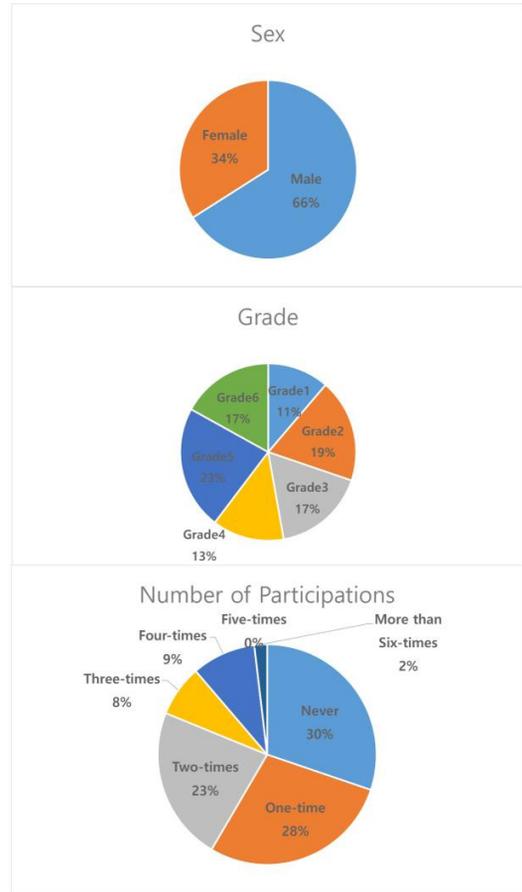


Fig. 1. Distribution of survey participants (n=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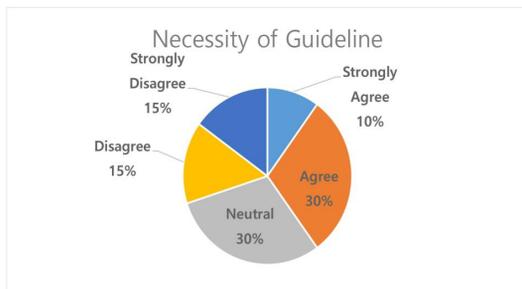


Fig. 2. Response distribution on the necessity of clinical guidelines for medical volunteering

3) 한의 의료봉사 진료지침의 항목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내용

감염관리, 진단과 침구 치료, 한약(약물)치료 항목에서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세부내용을 객관식으로 제공하였으며 중복 답변이 가능하게 하였고 53명이 응답하였다.

감염관리 항목에서 침치료 이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가 36명(67.9%), 멸균시술이 28명(52.8%), 침구 치료 부작용이 19명(35.8%), 자침 시 환자 자세가 15명(28.3%)이었다.

진단과 침구치료 항목에서는 다빈도 질환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혈이 32명(60.4%), 감별진단이 27명(50.9%), 이학적 검사가 19명(35.8%), 유침시간이 11명(20.8%)이었다.

한약(약물)치료 항목에서는 적응 대상(체질, 연령)이 38명(71.7%), 다빈도 한약의 적응증이 27명(50.9%), 복용법이 24명(45.3%), 복용일이 14명(26.4%)로 나타났다(Fig. 3).

4. 의료봉사 전 후 KMCP 평가

각 항목에 대해 ‘전혀 그렇지 않다’를 1점, ‘그렇지 않다’를 2점, ‘보통이다’를 3점, ‘그렇다’를 4점, ‘매우 그렇다’를 5점으로 표시하도록 하였다.

1) 의과학과 한의학지식 이해하고 임상에 적용할 수 있는 한의사(Knowledge)

- K1: ‘과학원리를 이해하고 인체의 구조, 기관, 조직, 세포 및 분자수준에서 건강한 신체와 질병의 원리를 이해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15점을 나타냈다. 의료봉사 이후 이루어진 2차 설문에서는 3.87점을 나타냈다.
- K2: ‘한의학 이론을 이해하고 건강문제의 생리, 병리를 설명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17점



Fig. 3. Responses on necessary items and detailed items for guidelines

을 2차 설문에서는 3.89점을 나타냈다.

- K3: ‘의학정보를 검색, 선별하여 종합할 수 있다.(Medical Informatics)’는 1차 설문에서 3.33점을 2차 설문에서는 4.06점을 나타냈다.

K 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1차 설문 3.22점에서 2차 설문 3.94점에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2) 1차 의료에 있어 충분한 능력을 갖춘 한의사 (Korean Medical Competency)

- M1: ‘신체 진찰 및 의료기기를 이용하여 진단할 수 있다.(Patient investigation)’는 1차 설문에서 2.73점을 2차 설문에서는 3.98점을 나타냈다.
- M2: ‘임상추론을 통해 치료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Clinical Reasoning and Decision Making)’는 1차 설문에서 2.69점을 2차 설문에서는 3.60점을 나타냈다.
- M3: ‘1차 진료에 필요한 임상술기를 익숙하게 시행할 수 있다.(Clinical Skills)’는 1차 설문에서 2.65점을 2차 설문에서는 3.64점을 나타냈다.
- M4: ‘치료계획에 따른 환자관리를 할 수 있다.(Patient Management)’는 1차 설문에서 2.71점을 2차 설문에서는 3.74점을 나타냈다.
- M5: ‘환자에 대해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지도를 할 수 있다.(Prevention)’는 1차 설문에서 2.92점을 2차 설문에서는 3.85점을 나타냈다.
- M6: ‘응급 상황에 대한 판단과 대처를 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2.79점을 2차 설문에서는 3.70점을 나타냈다.

M 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1차 설문 2.74점에서 2차 설문 3.75점에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3) 소통하는 한의사(Communication)

- C1: ‘환자 및 보호자와 원만하게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71점을 2차 설문에서는 4.42점을 나타냈다.
- C2: ‘한의사 및 타의료인과 적절히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1차 설문에서 3.75점을 2차 설문에서는 4.42점을 나타냈다.

C 항목에서는 평균적으로 1차 설문 3.73점에서 2차 설문 4.42점에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4) 전문가로서의 한의사(Professionalism)

- P1: ‘한의사로서의 정체성을 이해하고 가치관을 유지한다.’는 1차 설문에서 3.88점을 2차 설문에서는 4.55점을 나타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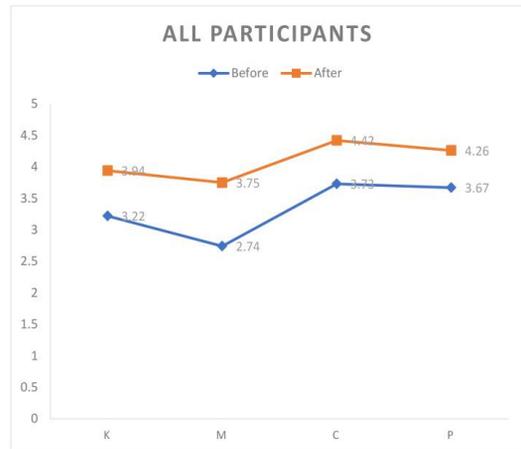


Fig. 4. Difference in pretest and posttest competency scores

- P2: ‘자기 주도 학습과 성찰을 할 수 있다.(Personal development)’는 1차 설문에서 4.03점을 2차 설문에서는 4.47점을 나타냈다.
- P3: ‘관련 법 및 제도를 이해하고 의무기록과 병원 경영관리를 할 수 있다.(legal responsibility, information)’는 1차 설문에서 2.63점을 2차 설문에서는 3.66점을 나타냈다.
- P4: ‘인간을 존중하고 진료와 연구에서 윤리적 가치관을 확립한다.(ethical)’는 1차 설문에서 4.11점을 2차 설문에서는 4.40점을 나타냈다.
- P5: ‘지역사회 건강, 공공 보건의료 및 국제보건에서 요구하는 다양한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다.(Social Responsibility)’는 1차 설문에서 3.71점을 2차 설문에서는 4.25점을 나타냈다.

P 항목에서 평균적으로 1차 설문 3.67점에서 2차 설문 4.26점에서의 역량 변화를 보였다(Fig. 4).

5) 의료봉사 전후 역량 증대에 대한 대응표본 t검정

K, M, C, P 4가지 영역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역량이 증대되었다(Table 2).

5. 학년별 역량평가 분석

1) 예과 1학년

6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1.78점, M항목은 1.44점, C항목은 3점, P항목은 3.43점이었다. 의료봉사 후에 실시된 2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점, M항목은 2.75점, C항목은 4.17점, P항목은 3.73점을 나타냈다.(Fig. 5).

2) 예과 2학년

10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2.73점, M항목은 2.15점, C항목은 3.65점, P항목은 3.34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3.7점, M항목 3.62점, C항목 4.45점, P항목 4.28점을 나타냈다(Fig. 5).

3) 본과 1학년

9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63점, M항목은 3.09점, C항목은 3.63점, P항목은 3.93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4.26점, M항목 3.98점, C항목 4.44점, P항목 4.47점을 나타냈다(Fig. 5).

4) 본과 2학년

7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71점, M항목은 3.35점, C항목은 4.22점, P항목은 3.89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4.05점,

M항목 3.5점, C항목 4.5점, P항목 4.17점을 나타냈다(Fig. 5).

5) 본과 3학년

12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47점, M항목은 2.89점, C항목은 3.63점, P항목은 3.36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3.83점, M항목 3.9점, C항목 4.33점, P항목 4.23점을 나타냈다(Fig. 5).

6) 본과 4학년

9명이 응답하였으며 1차 설문조사 결과 K항목은 3.63점, M항목은 3.58점, C항목은 4.17점, P항목은 4.07점이었다. 2차 설문조사에서는 K항목 4.56점, M항목 4.35점, C항목 4.56점, P항목 4.51점을 나타냈다(Fig. 5).

7) 학년별 비교

예과 학년의 역량 향상이 본과 학년들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Fig. 6).

고찰

1. 진료 지침 설문

한 의과대학 학생들의 의료봉사활동에서 진료 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인지하고 선현연구들을 분석해본 결과 한 의과대학 학생의 방학 중 농어촌지역 의료 봉사 활동과 그에 따른 교육 및 봉사시스템의

Table 2. Paired T-test on Pretest and Posttest Competency Scores Paired Samples Test

		Paired Differences		Significance
		Mean	Std. Deviation	p
Pair 1	K(post) - K(pre)	0.71	1.04	<.001
Pair 2	M(post) - M(pre)	1.05	1.11	<.001
Pair 3	C(post) - C(pre)	0.67	1.09	<.001
Pair 4	P(post) - P(pre)	0.56	0.90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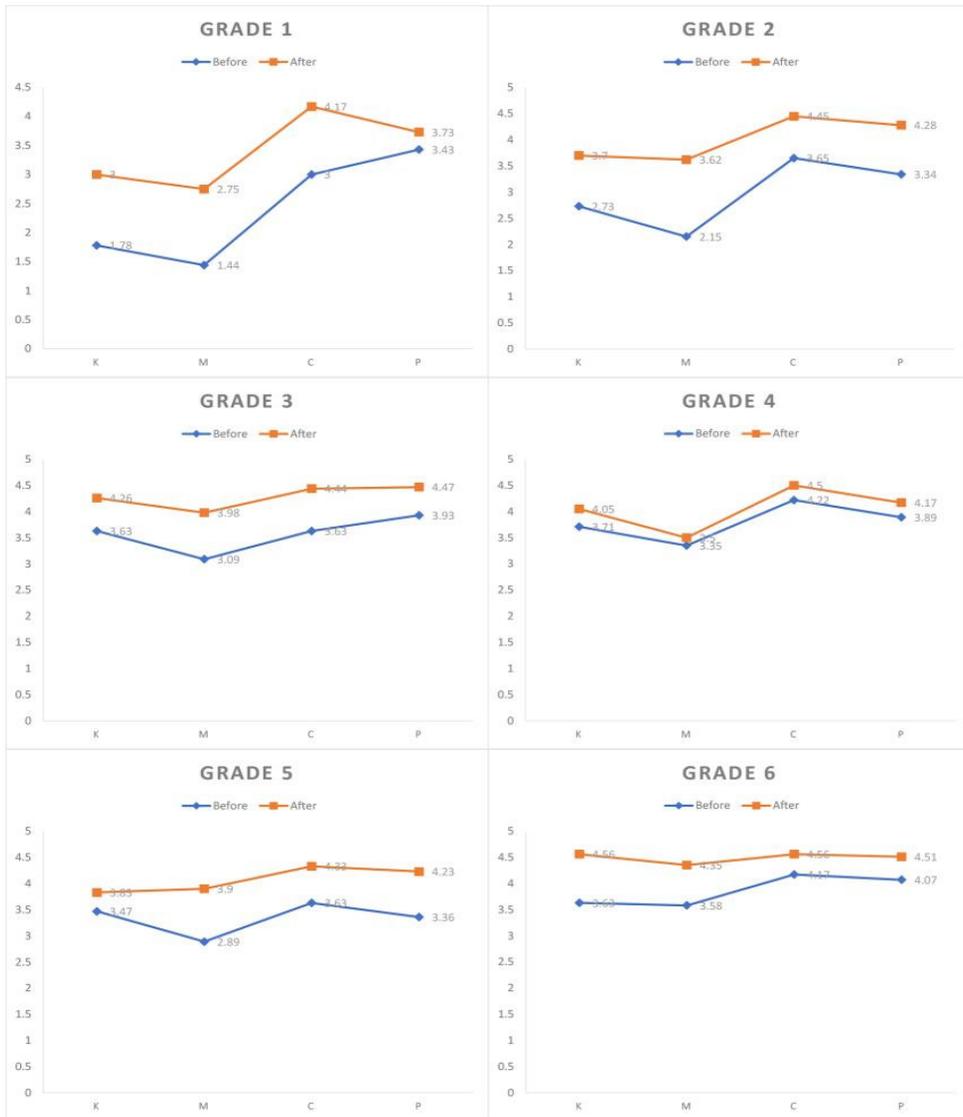


Fig. 5. Competency enhancement by grade level

개발에 대한 필요성⁷⁾이 대두된 바가 있으나 후속 연구가 미비하였다. 이에 한의과대학 의료봉사 진료 지침을 개발하고자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 진료 지침의 필요성과, 필요한 항목과 세부내용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1) 진료 지침 필요성

진료 지침 설문에 따르면 진료 지침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에 대해 ‘매우 그렇다’가 8%, ‘그렇다’가 30.2%, ‘보통이다’ 30.2%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하였다. 이는 의료봉사 지침 개발이 필요할 것⁵⁾이라는 선행연구의 주장과 일치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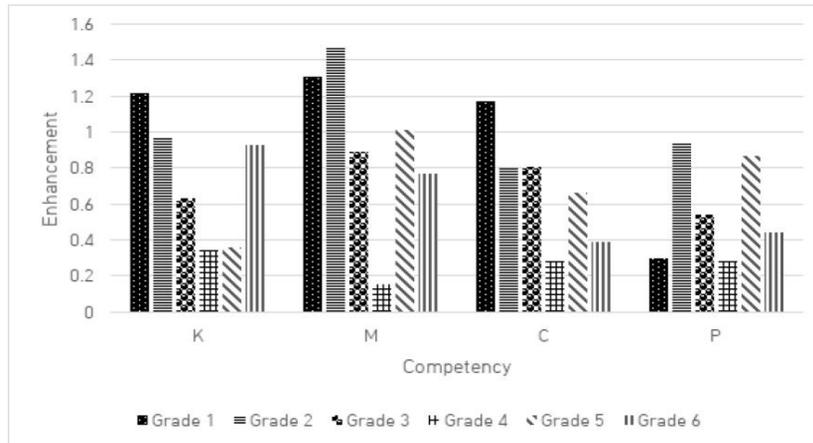


Fig. 6. Comparison of competency enhancement by grade level

다. 학생들은 각자의 교육수준에 맞게 예과 1학년부터 본과 2학년까지는 예진, 본과 3학년은 본진보조, 본과 4학년은 본진을 담당하도록 임무를 분배받았다. 그러나 임무 수행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학교 정규교육과정만으로는 의료봉사 진료에 대해서 충분히 대비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2). 진료 지침 필요 항목

진료 지침에 가장 포함되어야 하는 항목에 대해서는 ‘진료시스템’이 75.5%로 가장 높게 차지하였는데, 이는 선행연구에서도 필요성이 제시된 바가 있다⁷⁾. 의료봉사에 참가한 적이 없는 학생들이 30.18%, 1회가 28.3%, 2회가 22.64%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의료봉사 경험이 적은 초보자인 것으로 볼 때, 의료봉사 활동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시스템에 대한 수요가 가장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의료봉사라는 특성상 의료가관과는 달리 대기실, 예진실, 진료실, 약재실을 직접 설치해야 하고,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다양한 학년의 학생들이 진료 활동의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특수성을 가진다. 하지만, 각각의 역할과 효율적 진료시스템을 포함하는 표준화된 지침이 없기 때문에, 의료봉사활동 현장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⁷⁾.

그 다음으로는 ‘침구치료’가 45.3%, ‘환자관리’가 43.4%, ‘진료환경’이 37.7%, ‘감염관리’가 34%로 여러 항목들에 대한 진료 지침의 수요가 모두 높은 수준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는 학생 의료봉사자들이 경험과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봉사활동의 환경과 진료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지침의 수요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진료 지침 개발은 학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의료봉사를 수행하고,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3) 진료 지침 필요 세부항목

‘감염관리’ 세부항목 중에서는 ‘침구치료 후 이상 반응에 대한 대처’가 67.9%로 가장 높았다. 학생들은 침구치료 경험이 많지 않아 술기가 미숙할 수 있고, 의료봉사 특성상 치료환경이 안정적이지 못한 점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된다.

‘진단과 침구치료’ 세부항목 중에서는 ‘다빈도 질 환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혈’이 60.4%로 가장 높았

다. 의료봉사활동의 현장에서는 충분한 이학적 검사를 포함한 다양한 검사를 수행하여 진단하고, 감별진단에 따른 질환 특이적 치료를 시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통상적 치료법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선행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의료봉사 특성상 의료인력 대비 환자수가 많으며, 대부분이 고령 환자이며, 다발성 통증 부위를 호소하고, 직접적인 통증 부위인 아시혈에 침치료를 원한다는 점에서, 통상적이며 기본적으로 활용 가능한 상용혈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한약치료’ 세부항목 중에서는 ‘적용 대상’ 71%, ‘적응증’ 50.9%로 높게 응답하였다. 의료봉사 특성상 환자에게 적합한 약을 제조하기보다 구비한 약 중에서만 처방이 가능하며, 매우 다양하고 세분화된 약을 구비해 놓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보편적으로 처방할 수 있는 지침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된다.

2. 역량 설문

의료봉사활동은 보건의료 학생들의 전공능력에 대한 실습의 의미를 가진다. 선행 연구를 분석한 결과 대학생의 봉사활동은 봉사대상자보다 대학생 자신의 교육적인 성과가 더 크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과대학에서 실시한 설문에서는 의료봉사가 필요한 이유로 ‘전공에 대한 실습’에 가장 많은 응답이 있기도 하였다⁸⁾. 이 밖에도 보건의료 대학생의 의료봉사가 역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2건^{13,14)}, 의료봉사 후 전반적인 만족도에 대한 연구가 2건^{1,2)} 존재하였다.

또한 전공능력 중 보건의료인의 올바른 사명감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의학교육에서는 오래전부터 인성교육과 사회봉사에 대한 필요성과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지만 현실적인 교육과정은 매우 부족하여 의료봉사 활동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서 논의되고 있다⁴⁾.

본 연구에서는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전공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해보고자 의료봉사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본인의 핵심역량(KMCP)을 평가하는 설문을 의료봉사 직전과 직후에 시행하였다.

1) 의료봉사 전후 역량 비교

역량 설문에 따르면 학생들의 핵심역량이 K, M, C, P 모든 영역에서 증가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 선행연구^{1,2)}에서도 의료봉사 후에 개인 역량이 증가한 점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는 의료봉사 후 전반적인 만족도를 평가한 기존 연구^{1,2,13,14)}와 달리 의료봉사활동을 가기 직전과 직후에 가장 영향력이 높은 시점에 설문을 시행하였으며, 전과 후를 직접적으로 비교하였다는 점에서 학생들의 역량 향상을 더 명확히 보여준다는 의의가 있다.

2) 학년별 분석에 대한 논의

예과 학생들의 역량 향상이 본과 학생들에 비해 높게 관찰되었는데, 이는 의과대학 신입생이 의료봉사활동 후 동기가 향상된 기존 연구²⁾와 일치한다. 직접 환자를 대면하는 경험이 봉사정신과 전공 의학 공부에 대한 흥미를 불러일으키며¹⁵⁾, 고학년이나 수련기간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술기나 환자 대면 등을 이제 갖 입학한 신입생이 체험함으로써 생기는 뿌듯함과 동경해왔던 직업을 가진 듯한 희열 등이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²⁾. 또한 지역사회중심 일차의료 실천 경험이 장래의 의사의 역할로서 공감적이며 사회문제에 책임성이 있는 의료 전문인으로 성장하게 한다는 기존 연구¹⁶⁾와도 관련이 있을 것이다.

3. 한계 및 제언

기존의 연구에서는 의료봉사 참여 이후 한 건의 설문조사만 진행한 것에 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의료봉사 활동 전과 후의 역량 변화를 확인하였다는 점

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기존 연구⁶⁾에 비해 더 많은 표본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단일 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점과, 학년 및 성별의 균일하지 않다는 점에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것에 제한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에서는 응답자 구성의 다양화 및 층화를 통하여 보다 신뢰도 있는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결론

1. 진료지침의 부재로 인해 각 학년의 대부분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진료시스템을 포함하여 봉사활동의 환경과 진료 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전반적인 영역에서의 지침에 대한 수요가 있다.
3. 세부항목에 대해서는 ‘침구치료 후 이상반응에 대한 대처’, ‘다빈도 질환에서 사용 가능한 치료법’, ‘한약치료 적응 대상’ 등 진료환경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항목에 대해 수요가 높다.
4. 의료봉사활동은 한의과대학 학생들의 전공능력 역량을 모든 방면에서 향상시켰으며, 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하였다($p < 0.01$).
5. 학년별 분석에서는 예과 학생들의 전공능력 향상 정도가 본과 학생들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2024년도 OO대학교 창의학술연구 프로그램에서 수행되었습니다.

참고문헌

1. Ahn, J.H., Chae, W.J., Cho, S.K., & Cho, C.S. (2015). The Study on Senior Citizens and Korean Medicine University Students' Satisfaction about Medical Service and Senior Citizens' Perception of Medical Welfare Service. *Journal of Hachwa Medicine*, 24(1), 1-14.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34_8993
2. Na, B.J., Yoon, J.M., Kang, J.G., Hwang, W.M., Lee, G.H., Lee, J.M., et al. (2013). Using a medical volunteer program to motivate medical freshmen.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5(3), 239-243. <https://doi.org/10.3946/kjme.2013.25.3.239>
3. Park, K.M. (2021). Understanding learning experiences through the professional identity formation in traditional Korean medical students. *Chung-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https://dcollection.cau.ac.kr/srch/srchDetail/000000234167>
4. Lee, K.S., & New Horizon (2001). Konkuk Medical School Students Consciousness on Volunteer Activities.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13(1), 1-14. <https://www.kjme.kr/upload/pdf/kjme-13-1-1.pdf>
5. Kim, J.B., Moon H.S., & Chang, K.W. (1977). Analysis of Free Dental Cares Served by College Students and Community Responses to Service Activities. *The Journal of the Korean Dental Association*, 15(12), 1014-1023. <https://koreascience.kr/article/JAKO197741847755140.pdf>
6. Lee, H.S., & Park. S.J. (2020). A Study 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Medical Service : Case of Korean Medicine College's Medical Service Club Student. *THE Journal of East - West Medicines*, 45(1), 1-10. <https://kiss.kstudy.com/Detail/Ar?key=3817389>
7. Song, H.C., & Kim, S.H. (1999). Research Analysis on Patients Receiving Korean Medicine Treatment at Welfare Centers in

- Seoul. Journal of Haehwa Medicine, 8(1), 177-182. <https://koreascience.or.kr/article/JAKO199925552554360.pdf>
8. Kim, C.G., & Lim, M.R. (2011). Development Directions of Voluntarism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2(2), 57-65. <https://doi.org/10.15207/JKCS.2011.2.2.057>
9. Kim, H.J. (2013). A Study on the Factors Impacting the Efficacy of Medical Employees' Volunteer Activities. <https://www.riss.kr/link?id=T13040869>
10. Lim, B.O. (2009).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Satisfaction of Hospital Employees' Volunteer Activities. Hanyang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Local Autonomy. <https://www.riss.kr/link?id=T11797885>
11. Park, Y.N., Oh, H.N., & Lee, H.J. (2013). The Study on Voluntary Satisfaction and Voluntary Activities of Dental Hygiene Student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11(11), 621-631. <https://doi.org/10.14400/JDPM.2013.11.11.621>
12. Yang, Y. K. (2018). Influences of Participation Motivation and Satisfaction of Nursing Students on Continuance Willingness of Voluntary Activities. Journal of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Nursing Education. 24(4), 415-423 <https://doi.org/10.5977/jkasne.2018.24.4.415>
13. Park, S.Y., Kim, J.K., & Lee, T.Y. (2011). Effect of Occupational Therapy Volunteering on Self-esteem and Self-efficiency in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1(2). 376-384. <https://doi.org/10.5392/JKCA.2011.11.2.376>
14. Jeon, M. Y., Yu, M., Jung, S. H., Yoon, C. Y., & Back, W. H. (2024). The Effect of Healthcare Volunteer Program on Nursing Students' Nursing Professionalism, Self-efficacy, Self-leadership, Major Satisfaction and Volunteer Activity Satisfaction. Forum of Public Safety and Culture. Forum of Public Safety and Culture. 31(9). 115-125. <https://doi.org/10.52902/kjsc.2024.31.115>
15. Kim, D.G., Kim S. M., Kim, S.H., Ahn, D.S., Kim, S.Y., Choi, Y.S., et al. (2008). The Educational Effect of Pre-medical Curriculum for a Service Learning Program. Korean Journal of Family Medicine, 29(11), 867-871. https://uci.kci.go.kr/resolution/result.do?res_cd=G704-000343.2008.29.11.005&res_svc_cd=
16. Park, E. W. (2013). Premedical Students' Experiences in Community-oriented Primary Care.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Korean Society of Medical Education. 25(3). 229-237 <https://doi.org/10.3946/kjme.2013.25>

ORCID

이지현 <https://orcid.org/0009-0002-5732-0067>
이륜경 <https://orcid.org/0009-0009-0311-8016>
김범수 <https://orcid.org/0009-0007-6746-217X>
김민정 <https://orcid.org/0000-0001-6156-0886>